야쿠모를 뒤쫓은 소세키

Soseki Shadows Hearn

고이즈미 야쿠모(라프카디오 헌)와 나쓰메 소세키 사이에는 신기한 인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5고등학교와 도쿄 제국 대학에 엇갈리게 근무하기도 했기에 소세키는 같은 교육자이자 작가로서 야쿠모를 강하게 의식한 듯합니다.

Lafcadio Hearn (Koizumi Yakumo) and Natsume Soseki were inexplicably separated by fate. Although the two writers both took up positions at The Fifth High School and Tokyo Imperial University, they miraculously never crossed paths. Even so, as a fellow educator and writer, Soseki was keenly aware of Hearn's existence.

연도	1850	1867	1890	1891	1893	1894	1895	1896	1900	1903	1904	1907	1916
나이			40	41	43	44	45	46		53	54		
고이즈미 야쿠모	6월 27일 그리스 레프카다섬에서 출생. 2세에 아일랜드로 이주.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져 작은할머니 밑에서 성장.		일본으로 이주. 시마네현립 사범학교. 진조 중학교(마쓰에 중학교)의 영어 교사로 부임.	제5고등중학교(1894년 제5고등학교로 개칭)의 영어 교사로 부임하여 구마모토로 이사.	장남 가즈오 출생.	구마모토를 떠나 고베 크로니클사에 입사.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모습》 출판.	《동쪽 나라에서》 출판.	도쿄 제국 대학 문과 대학 영문과 강사에 취임.		도쿄 제국 대학 강사를 사직.	와세다 대학 문학부 강사에 취임. 9월 26일 별세. 조시가야 묘지에 안장.		
나쓰메 소세키	2월 9일 도쿄 우시고메에서 출생(본명 긴노스케). 바로 수양아들로 보내져 1세에 양자가 되고, 9세에 호적은 그대로인 채 나쓰메 가문으로 돌아감.		도쿄 제국 대학 문과 대학 영문과 입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 도쿄 고등사범학교의 영어 교사로 부임.		에히메현립 시코쿠 중학교(마쓰야마 중학교)의 영어 교사로 부임.	제5고등학교의 영어 교사로 부임하여 구마모토로 이사. 3개월 후 교수로 승격.	영국 유학.	일본 귀국. 도쿄 제국 대학 문과 대학 강사에 취임. 제1고등학교 강사에 취임.	메이지 대학 강사 겸임.	도쿄 대학 및 다른 교직을 사임하고 아사히 신문사 입사.	12월 9일 별세. 조시가야 묘지에 안장.

야쿠모와 소세키의 수업

Hearn's and Soseki's Lectures

제5고등학교와 도쿄 제국 대학에 엇갈리게 근무한 야쿠모와 소세키이지만, 이 두 사람이 수업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모습의 단편을 그들의 제자들이 남긴 기록으로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Though both Hearn and Soseki held teaching positions at The Fifth High School and Tokyo Imperial University, the individual styles of their lectures were worlds apart. Notes left by their students offer us a glimpse into the different atmospheres of their classrooms.

제5고등학교 시절

The Fifth High School Period

●야쿠모의 수업

야쿠모의 수업은 무라카와 겐고의 '모교의 고이즈미 선생님'(※1)에 "칠판을 향해 분필을 쥐고 왼쪽 위 구석부터 문법을 쓰기 시작하셨다. 학생은 묵묵히 이를 베껴 썼다"라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껴 쓴 필기장을 방과 후에 읽어 보면 질서 정연한 데다가 일본 학생에게 있어 가장 적절한 문법상의 주의가 적혀" 있었으며, "선생님은 어떠한 원고도 없이 전체 수업 시간 내내 막힘없이 써내려 갔다"는 기술을 보더라도 야쿠모의 수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1 《류난》 제200호(1926년) 수록

※2 《소세키 전집 월보》(1967년 이와나미) 수록

Contrastingly, Kengo Murakawa tells us in his notes, 'Professor Yakumo Koizumi of my alma matter' (*1), that he would silently copy down the English grammar that Hearn had written on the blackboard. When he looked at his notebook after the lecture had ended, the grammar points that were most salient for Japanese students would be neatly written out. Moreover, as Hearn would continuously write on the board for the whole of the class, it is plain to see that he approached his lessons with some seriousness.

●소세키의 수업

야쓰나미 노리키치의 '소세키 선생님과 나'(※2)에 의하면 소세키는 수업에 '소홀'했으며, "(교과서를) 계속해서 자꾸만 읽게 했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니 '어떤 글자를 모르지? …… 사전은 찾아봤나?' 라고 반문하셔서 좀처럼 질문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수업은 계속 진도만 나갈 뿐이었다" 는 기술처럼 그저 교과서를 읽어 나가기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쫓아가는 데 필사적이었지만, 진도가 빠른 만큼 교과서는 물론 《오셀로》 등의 소설을 한 권 읽는다는 데에서 달성감과 희열을 찾아냈던 듯합니다.

According to Norikichi Yatsunami's entry entitled 'Professor Soseki and I' (*2), Soseki's classes consisted solely of reading through the textbook. While it was all the students could do not to fall behind, such rapid progress rewarded them with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joy, being able to read entire works such as 'Othello' back to back as well as cover their textbook.

*1 Published in 'Ryuunan' Issue No. 200 (1926)
*2 Published in 'Soseki Collected Works Monthly Report' (1967 Iwanami)

도쿄 제국 대학 시절

The Tokyo Imperial University Period

●야쿠모의 수업

야쿠모에 관해서는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고이즈미 선생님 그 외》에서 "인용해야 하는 시문책은커녕 종잇조각 한 장조차 교실에 가져오는 일 없이 강의했다"라고 기술된 것처럼 제5고등학교 시절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구두 수업 형식이었는데, 교실에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점은 똑같아 여기에서 야쿠모의 독특한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수업 풍경은 "은방울을 흔드는 것 같은 그 목소리는 시구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다웠고 억양의 높낮음조차 아무런 부자연스러움이 없었다. 단속적인 한 마디 한 구절 모두 듣는 사람의 가슴속에 시의 영혼과 흥취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 학생의 문장도 야쿠모의 문학적 감성에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Hakuson Kuriyagawa writes in his 'Professor Koizumi etc.', that differing from his The Fifth High School days, now at Tokyo Imperial University, Hearn would conduct his lectures orally—though he still relied on no notes as before. It is said his lectures were stunning to behold, and that he touched the hearts of his students who listened intently without being disturbed by so much as a hint of unnaturalness in his pronunciation, grammar or intonation.

●소세키의 수업

노가미 도요이치로의 '대학 강사 시절의 나쓰메 선생님'(※2)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있어 소세키는 "교실에서의 태도는 말끔하고 시험 문제 등은 한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기에 모두 내심 두려움을 품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 등에 대해서도 "원고라고 하는 것으로 서양 괘지에 못대가리로 찌른 듯한 가는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행이든 뭐든 상관없이 늘어뜨린 것을 매일 한두 장씩 가져왔다" 등 소세키의 신경질적인 성격 그대로의 수업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oyolchiro Nogami's entry entitled 'Professor Natsume's Days as a University Lecturer', Soseki was a strict teacher to his students. More still, he is said to have used lecture notes filled in to the margins with scrawl. Here one can indeed directly glean evidence for his neurotic reputation.

소세키가 본 야쿠모

Hearn through the Eyes of Soseki

소세키의 아내인 교코는 《소세키의 추억》에서 "소세키의 말에 따르면 고이즈미 선생님은 영문학의 권위자이기도 하고 문호로서 세계에 알려진 대단한 분인데, 자신과 같은 신출내기 서생 나부랭이가 후임이 된다 한들 도저히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학생이 만족해 줄 리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간집》에서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잡지에 나올 때마다 호토토기스를 인용하는 것은 이상하다. 아무튼 2대 고이즈미도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으며, 소세키의 대표적 작품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나 《산시로》 중에서도 '고이즈미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교육자로서는 물론 같은 작가로서도 야쿠모를 강하게 의식하고 야쿠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Soseki's wife, Kyoko writes in 'Memories of Soseki' that because "Professor Koizumi" was a world-class literary master, her husband had doubts whether his students would be satisfied with his teaching following in Hearn's footsteps at The Fifth High School and Tokyo Imperial University. Additionally, in 'Collected Letters' she recounts how Soseki told her he could never become "the second Koizumi." However, given that Soseki has a character named "Professor Koizumi" appear in his major works 'I Am a Cat' and 'Sanshiro', it is clear that Hearn was an influential presence to him both as a fellow educator and writer.